



딱 한마디 영화사

천개의바람 | 안소연 글 | 이인아 그림

독서 배경 넓히기

• 다음 《딱 한마디 영화사》의 차례에서 평소 알고 있던 영화감독이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모두 써 보세요.



머리말 6	
 영화는 미래가 없는 발명품이다 오귀스트 뤼미에르(1862년~1954년), 루이 뤼미에르(1864년~1948년) 8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두려움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앨프리드 히치콕(1899년~1980년) 70
 마술도 꿈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조르주 멜리에스(1861년~1938년) 16	 영화감독은 영화의 진정한 작가가 되어야 한다 프랑수아 트뤼포(1932년~1984년) 80
 인생은 가까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1889년~1977년) 24	 나는 밤에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꿈을 꾸는다 스티븐 스필버그(1946년~현재) 88
 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땅이다 존 포드(1894년~1973년) 34	 호기심은 상상을 낳고, 상상은 현실을 만든다 제임스 카메론(1954년~현재) 98
 공꾸고, 믿고, 도전하라 윌트 디즈니(1901년~1966년) 44	 예술가의 책임은 전쟁의 본질을 묻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1941년~현재) 108
 영화감독이 되는 것은 최고의 장난감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오손 웰스(1915년~1985년) 54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봉준호(1969년~현재) 118
 내 영화는 허구보다는 사실을, 영웅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다룬다 비토리오 데 시카(1901년~1974년) 62	참고 문헌 128

내용 파악하기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 1 다음 중 뤼미에르 형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뤼미에르 형제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 ② 뤼미에르 형제의 아버지는 사진 관련 사업을 했어요.
- ③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영화 상영 장치를 만들었어요.
- ④ 뤼미에르 형제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 ⑤ 뤼미에르 형제는 평생 영화를 제작했어요.

- 2 다음은 영화 산업이 시작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

민준 : 토머스 에디슨은 스크린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를 발명했어.

지선 : 영화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어.

효미 : 처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사진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

정수 : 초창기에는 영화에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가 상영되었어.

연호 : 미국에 처음으로 생긴 영화 전용 극장의 이름은 니켈로디언이야.

- 3 다음은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화 <사라진 여인>을 관람한 관객들의 반응이에요. 영화의 특징이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골라 보세요. ()



- ① 테오: 여인이 사라지고 해골이 나타나다니, 이런 신기한 영상은 처음이야!
- ② 마리아: 조르주 멜리에스가 마술사였다더니, 영화에서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
- ③ 소피: 조르주 멜리에스가 직접 출연하는 영화라서 더 재미있군.
- ④ 리암: 조르주 멜리에스가 뤼미에르 형제에게서 산 영사기로 만든 영화라잖아!

- 4 다음은 찰리 채플린을 대표하는 ‘떠돌이’ 캐릭터와 떠돌이 캐릭터가 지닌 의미에 대한 설명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



떠돌이 캐릭터는 (㉠)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신사였고, 모험과 사랑을 꿈꾸는 외톨이였어요. 이 캐릭터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1936)까지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지금까지도 찰리 채플린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지요.

“웃음 뒤에 눈물을 감춘 (㉠)이 성공할 거야. 나는 희극과 비극이 함께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찰리 채플린은 불운한 현실 속에서도 (㉠)을 말하는 코미디
를 원했어요.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에
담으며 삶의 비극을 (㉡)로 극복하고자 했지요.

- ① ㉠-여행자 ㉡-연극 ㉢-절망 ㉣-놀이
② ㉠-노동자 ㉡-비극 ㉢-희망 ㉣-유머
③ ㉠-방랑자 ㉡-희극 ㉢-희망 ㉣-유머
④ ㉠-이민자 ㉡-비극 ㉢-현상 ㉣-독서
⑤ ㉠-방랑자 ㉡-희극 ㉢-이상 ㉣-놀이

- 5 다음은 월트 디즈니와 그의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디즈니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아버지: 이 녀석, 또 그림 그리는 거냐?

디즈니: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아버지: 일을 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해야지!

디즈니: 저는 만화가가 될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만화가야! 만화가는 절대 안 된다!

디즈니: 아버지,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 ① 디즈니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어요.
- ② 디즈니는 자신의 재능에 자신이 있었어요.
- ③ 디즈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 ④ 디즈니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 ⑤ 디즈니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6 다음은 영화 문법의 주요 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르게 짝지어 보세요.

- | | |
|--------|---|
| ① 샷 ◆ | ◆ ㉠ 대사, 음악, 음향 효과 등 모든 소리가 포함돼요. |
| ② 편집 ◆ | ◆ ㉡ 촬영한 영상을 선택하고 연결해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
| ③ 앵글 ◆ | ◆ ㉢ 빛의 밝기, 색, 방향 등으로 인물이나 배경을 강조해요. |
| ④ 조명 ◆ | ◆ ㉣ 카메라가 인물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를 말해요. |
| ⑤ 음향 ◆ | ◆ ㉤ 카메라가 연속으로 촬영한 영상의 기본 단위예요. 촬영 거리에 따라 롱샷, 미디엄샷, 클로즈업으로 나누어요. |

7 다음은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작품 <자전거 도둑>의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줄거리의 흐름에 맞게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 보세요.
(- - - -)

- ㉠ 브루노의 아버지 리치는 포스터 붙이는 새 일자리를 구해요.
㉡ 리치는 자전거 도둑을 찾았지만 증거가 없어 되찾지 못해요.
㉢ 리치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다 사람들에게 들켜요.
㉣ 리치는 새로 산 자전거를 도둑맞아요.
㉤ 새로운 일에 자전거가 필요해 어렵게 자전거를 마련해요.



8 다음 중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노력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 ① 어린 시절, 가족 행사의 촬영을 도맡아 했어요.
② 학창 시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영화를 찍었어요.
③ 직접 만든 영화를 마을의 작은 극장에서 상영했어요.
④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며 전문적으로 교육받았어요.
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감독들의 촬영 장면을 관찰했어요.

-
- 9 다음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갖는 특징을 설명한 대목이에요. 괄호 ㉠, ㉡,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적어 보세요. ()



봉준호의 모든 영화는 자신의 (㉠)에서 출발했어요. 아파트에서 경비원 할아버지를 보며 떠올린 <플란다스의 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살인의 추억>, 고등학생 시절 잠실대교에서 본 괴생명체에서 착안한 <괴물>, 관광버스에서 아주머니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구상한 <마더>, 대학생 때 부잣집에서 과외했던 (㉡)을 바탕으로 한 <기생충>까지. 봉준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계급 갈등, 환경 문제, 빈부 격차 등 사회 보편적인 주제로 확장했어요.

내용 정리하기

- 봉준호 감독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감독상을 받은 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어요. 만약 내가 영화감독이 된다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나요? 영화로 표현하고 싶은 나만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정답

<1쪽>

(예시)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 많이 접한 이름이에요. 처음엔 사람 이름인 줄 모르고, 영화를 만든 회사 이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이야기도 흥미롭고, 그림도 밝고 귀여워서 늘 즐겁게 봐요.

<2쪽>

- 1 ⑤
- 2 민준
- 3 ④

<3쪽>

- 4 ③
- 5 ④

<4쪽>

- 6 ①-㉠ ②-㉡ ③-㉢ ④-㉣ ⑤-㉤
- 7 ㉦-㉧-㉨-㉩-㉪
- 8 ④

<5쪽>

- 9 경험

<6쪽>

(예시) 열 살 때, 아파트 주변을 맴돌던 떠돌이 강아지가 있었어요. 저는 ‘만두’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간식도 챙겨 주며 틈만 나면 함께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너무 그리운 마음에 부모님을 졸라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고, 강아지를 입양하러 유기견 보호소에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두를 다시 만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만두를 입양했고, 지금도 함께 지내고 있어요. 만두와 저의 우정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